

한국 현대 노년시에 나타난 노화된 몸에 대한 인식 및 형상화 방식 연구

이 현 정*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골조직의 노화에 대한 고통의 부
각과 교훈적 표현 |
| 2. '노년시'와 '노화된 몸'의 관계 | 4) 비뇨기관 및 생식기관의 노화에
대한 이해와 당부의 표현 |
| 3. 노화된 몸의 양상과 시적 대응 | 4. 맺음말 |
| 1) 외견상의 노화에 대한 비탄과
예찬의 표현 | |
| 2) 감각기관의 노화에 대한 두려움
과 새로운 감각적 표현 | |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 현대 노년시 연구의 일환으로, 노년시에 나타난 '노화된 몸'에 주목하여 노년시의 주체가 몸의 각 기관의 노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의 시적 대응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 현대 노년시에 나타난 '외견상의 노화된 몸'에 대한 사유는 발화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연구원

주체가 노년인 시에서 더 직접적이며 사실적으로 발화되고 있다. ‘외견상의 노화된 몸’은 늙음을 인정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며, 그 노화된 늙음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이미지나 비유를 통해 비탄의 감정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긍정적 표현을 통해 노년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예찬하기도 한다.

‘감각기관의 노화’는 시인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노화이며, 고령의 시인들은 그들이 시인으로서 더는 시적 대상을 감각할 수 없을까 봐 몹시 두려워한다. 그중 청각의 노화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큰 장애가 되는 요인이고, 그로 인해 느끼는 노인의 소외감이 표현되고 있지만, 노년시의 주체들은 청각의 노화로 심한 갈등을 겪기보다는 스스로 그러한 몸의 노화를 수긍하는 자세를 보인다. 한편 시각의 노화는 생활의 불편함을 가져오고 때론 위험한 일을 겪게도 하지만,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을 새로운 시각적 경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세계를 다시 감각하는 시적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

‘골조직의 노화’에 대한 사유는, 골조직의 노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젊은이들의 건강하고 빠른 걸음과 대비함으로써 노화된 몸의 고통을 부각하는 한편, 젊은이들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가지게 하고 있다. 또한, 골조직이 노화된 몸을 우대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타인에게 배려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거나, 골조직의 노화가 주는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유희적 표현으로 무마하고 있는 노년시도 있다.

‘비뇨기관 및 생식기관의 노화’는 노년들이 몸의 노화에 있어 가장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부분인 만큼 한국 현대 노년시에 나타난 ‘비뇨기관 및 생식기관의 노화’에 대한 사유는, 그것이 결코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는 한 과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늙음’이란 몸이 정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며, 그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노년의 난감함과 당혹감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모를 감정임을 강조하면서, 노인들이 비뇨기관의 노화나 생식기관

의 노화로 몸을 통제하지 못할 때, 함부로 노인들을 비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 현대 노년시에 나타난 ‘노화된 몸’은 주체가 그것을 자연의 패러다임 속에서 하나의 순리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의 패러다임 속에서 퇴보되고 있다고 여길 때 소외감과 두려움의 발로가 되어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노년시, 노화된 몸, 생물학적 노화, 고령화 사회, 시적 대응

1. 머리말

이 글은 ‘한국 현대 노년시 연구’¹⁾의 일환으로, 노년시에 나타난 ‘노화된 몸’에 주목하여 노년시의 주체가 노화된 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노년’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오늘의 시점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몸’ 또한 해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최근 학계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노년’과 ‘몸’에 대한 화두는 근대적인 중심주의에 대한 해체로 인해 그동안 배제되거나 폄하되던 가치들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이 글에서는 몸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는 노년기 노년들의 몸, 즉 ‘노화된 몸’이 한국 현대 노년시에 어떻게 나타나

1) ‘한국 현대 노년시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한국 현대시가 노년에 대해 어떤 사유를 어떤 표현으로 낳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연구로, 고령화 사회에서의 문학적 대응을 연구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필자는 앞서 『한국 현대 노년시 연구 시론』(『한국시학연구』 45호, 한국시학회, 2016)을 통해 노년시의 범주 및 개념을 정립하면서 ‘한국 현대 노년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바 있다. 이 글은 그 후속 작업이다.

는지 살펴볼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늙어가기 마련이다. ‘늙어간다는 것’은 신체적 쇠퇴, 허약, 무기력, 생리적 기능의 쇠퇴 등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노화(senescence)’라고 한다. 이 용어는 원래 홀(G. Stanley Hall)이 ‘청년기’와 더불어 ‘노년기’를 규정할 때 처음으로 만들어 낸 용어이다. 홀이 말한 ‘노화’는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노화로 “전 생애 가운데서 퇴화과정이 재생적인 생물학적 과정을 능가하여 결국 유기체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시기”를 말한다.²⁾ 다시 말해, 어릴 때 자라는 과정을 성장이라 부르

2) G.S. Hall, *senescence: The last Half of Life*. New York; London: D. Appleton and Co., 1922.

홀이 정의한 ‘노화(senescence)’가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노화라면, 바이렌과 레너(Birren · Renner, 1977)가 정의한 ‘정상적 노화 과정(normal aging)’이란 “발생학적으로 대표적인 유기체가 정상적인 환경조건 속에서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히 일어나게 되는 변화”를 말한다. 즉, ‘정상적 노화 과정’은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은 특이한 환경이 아니라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유전적 결함이 있거나 특이한 형질을 갖추지 않은, 일반적이며 대표적인 유기체에 있어서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말하는 노화인 것이다. 따라서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노화(senescence)는 정상적인 노화(normal aging)의 하나의 부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노화는 다음의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① 노화는 모든 동물에게 있는 하나의 보편적인 과정으로, 늙어갈수록 전염병에 대한 면역성이 약해진다. ② 노화는 예기치 않은 사고나 뇌 내출혈 등과는 달리 매우 서서히 일어나며, 그 퇴화과정이 서서히 진행된다. ③ 노화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부적 요인에 의한 변화”이다. 물론 스트레스, 질병, 부상 등 이차적 원인에 의해서 노화 과정이 촉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차적 노화인 노화 쇠퇴(senescence)는 “내재적이고, 세포의 재생과 관련되며, 역전될 수 없는, 유전적으로 계획된 변화”이다. ④ 노화는 유기체의 여러 수준에서 일어난다. 즉 이러한 퇴화는 해부학적, 생리학적, 그리고 행동적 측면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노화로 인하여 결국에는 누구나 죽음에 이르게 된다. - 윤진, 『성인·노인 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1985, 75-76쪽, 참고. 한편, 권인순은 『노화의 정의 및 분류』(『대한의사협회지』 50권 3호, 대한의사협회, 2007.3, 208쪽)에서 노화의 정의를 광의의 노화(aging)와 협의의 노화(senescence)로 구분하고, 광의의 노화는 “생물체가 수태된 순간부터 사망까지 배아, 성숙, 성년기의 모든 변화를 얘기”하며, 협의의 노화는 “성숙한 다음부터를 지칭하며 시간이 갈수록 비가역적으로 나빠져 사망 확률이 높아지는 과정”으로, 이 경우 “생리적 기능

고, 25세 이후의 과정을 노화(老化), 즉 늙어간다고 한다.³⁾ 노화로 인해 유기체의 파괴가 일어나면, 인간의 몸은 다양한 생물학적 변화를 겪는다. 신체 크기와 형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감각기관, 순환기관, 호흡기관, 비뇨기관, 생식기관, 신경계 등에서 다양한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히 노년기 인간이 겪는 몸의 노화는 그 정도가 심하여 노인들은 노화로 인해 자신의 몸이 퇴화하고 있음을 강하게 체감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노화된 몸’이란 이러한 유기체의 파괴로 인해 겪게 되는 몸의 퇴화가 많이 진행되어 이미 늙은 몸이 된 상태를 가리킨다.

인간의 불로장생(不老長生)은 아직 꿈일 뿐이다. 눈부신 의학의 발전이 있었지만, 인간은 늙음과 죽음, 이 둘을 다 피할 수는 없다. 늙기 싫으면 죽어야 하고, 죽기 싫으면 늙어야 한다. 죽기 싫어 늙는다 해도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노화되고, 노화된 몸은 결국 죽음에 이른다. 다시 말해, 늙음과 죽음은 다소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영원히 막을 수는 없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생물학적 현상”⁴⁾인 것이다.

그렇다면 노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인간은 ‘노화된 몸’을 어떻게 인식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이러한 물음을 바탕으로 ‘노화된 몸’에 대한 관심은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⁵⁾

의 감소와 질병에 대한 감수성 증가 등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 감소 현상이 동반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3) 이호선, 『노인과 노화』, 시기마프레스, 2015, 16쪽.

4)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노년인문학센터, 『인문학자, 노년을 성찰하다』, 푸른사상, 2012, 6쪽.

5) 인간의 ‘노화된 몸’과 관련된 담론은 주로 ① 왜 노화하는가, ② 어떻게 노화되는가, ③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서적을 발표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윤진, 앞의 책; 김숙희·김화영 공저, 『노화』, 민음사, 1995; 박상철, 『우리 몸의 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홍숙자, 『노년학 개론』, 하우, 2010; 조셉 창, 『노화의 비밀』, 서영, 2011; 오상진, 『노화의 생물학』, 탐구당, 2015; 이호선, 앞의 책; 게리 크리스토퍼, 오수원 역, 김채연 감수, 『우리는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 이룸

한국 현대시 또한 노년기 시인을 비롯한 많은 시인이 텍스트에서 ‘노화된 몸’에 대한 여러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한국 현대시의 중견 시인들 대부분이 노경(老境)의 시인이 되면서 자신을 비롯한 주변인들의 노화된 몸이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 중요한 척도가 되었기 때문이며, 젊은 시인들 또한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신의 늙은 부모를 간호하거나 주변 노인들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노화된 몸에 대해 사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노화된 몸’은 아직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학계의 몸 담론은 페미니즘 시각에서 ‘여성의 몸’에 대해 논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김수영을 비롯한 몇 시인들의 작품 속에서 몸 담론의 특성을 밝혀내고 있는 정도이다.⁶⁾ 시문학의 저변에서 원로 시인들의 건강과 시인들의 노년에 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노화된 몸’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글은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나

복, 2015; 마티아스 이를레, 김태희 역, 『노인은 늙지 않는다;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 민음사, 2015; 조앤 T.에르버, 레노어 T. 슈츠 공저, 강영옥 역, 『노화, 그 오해와 진실』, 시그마프레스, 2016; 시디 김, 『노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책세상, 2016; 마거릿 크룩생크, 이경미 역, 『나이 들을 배우다; 젠더, 문화, 노화』, 동녘, 2016; 사이언티픽아메리칸 편집부, 김지선 역, 『노화의 비밀』, 한림출판사, 2017.

6) 대표적인 논문을 발표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송지현, 『현대 여성시에 나타난 ‘몸’의 전략화 양상-김혜순의 시세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5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2; 여태천, 『김수영 시의 ‘몸’과 그 의미』, 『상허학보』 14호, 상허학회, 2005; 이송희, 『김혜순 시에 나타난 몸의 언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남진숙, 『한국 전후시에 나타난 몸에 대한 표상과 그 의미: 『한국전후문체시집』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8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임지연, 『오장환 시에 나타난 ‘병든 몸’의 의미와 윤리적 신체성』, 『비평문학』 46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 김순아, 『90년대 이후 여성시에 나타난 여성의 몸과 전복의 전략: 김언희·나희덕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29호,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3; 최금진, 『김수영 초기시에 나타난 ‘몸’의 하이데거적 의미』, 『비평문학』 49호, 한국비평문학회, 2013.

타난 현대 노년시를 대상으로, 노인과 잠재적 노인이 발화하는 ‘노화된 몸’에 대한 차이의 감각을 염두에 두고, 한국 현대 노년시가 노화에 따른 몸의 각 기관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화된 몸’이 노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노인과 잠재적 노인이 ‘노화된 몸’을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하는지, 그 시적 대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노년시’와 ‘노화된 몸’의 관계

노년시는 시대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생겨난 새로운 현대시 유형이다. 노년에 대한 발화는 노인과 잠재적 노인 모두 발화할 수 있으므로, 노년시는 생산 주체인 시인의 연령층과는 무관한 텍스트 중심의 개념으로, 텍스트 측면에서 노인이 발화 주체이거나 노인을 발화 대상으로 설정하여 발화 주체와 노인의 관계 양상이 중점적으로 발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 문제 및 노년의 삶과 의식 등이 이미지나 비유, 상징, 또는 어조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시를 말한다.⁷⁾

7) 이현정, 앞의 논문, 278쪽. 조춘희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노년시 연구』(『민족문화논총』 64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6)에서 필자가 노년시의 범주를 설정하면서 “노년기에 쓰인 모든 시를 노년시 범주에 포괄할 수는 없다.”(254쪽)라고 한 견해를 반박하며, 노년기에 접어든 창작 주체의 제작품을 노년시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해야 “다양한 주체의 텍스트를 통해서 노년기 삶의 연속성과 특이성을 파악할 수 있다”(195쪽)라는 것이다. 그의 견해도 일리가 있으나, 시라는 텍스트는 단 한 편만으로도 매우 완전하고 독립적인 매체이므로, 시를 어떤 장르적 개념으로 범주화할 때는 먼저 텍스트 자체에 그 장르적 특성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를 누가 썼느냐보다 시의 텍스트 자체에서 누가 어떤 탈(persona)을 쓰고 무엇을 발화하고 있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노년기 시인이 노년기에 쓴 제작품을 모두 연구하는 것은 그 시인의 ‘노년기 시’를 연구하는 것이 되므로, 텍스트 중심의 ‘노년시’ 연구와는 구분되어

노년시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다양하다. 늙음과 죽음에 대한 비탄의 감정을 표현한 시가 있는가 하면 노년이 주는 행복과 철학적 사유 및 깨달음을 표현한 시도 있고 노년의 소외 현상 및 노년의 노동과 빈곤에 대해 발화함으로써 노년이 겪는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는 시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일차적으로 주목하는 점은 이 모든 주제가 ‘노화된 몸’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메를로 폰티는 “의식의 지향성의 근원을 신체 속에서 확립한다.”⁸⁾ 그는 『지각의 현상학』(1945)에서 인간 신체의 의미를 현상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인간의 경험의 뿌리가 신체, 즉 ‘몸’에 있음을 제시했다. “지각과 인식의 주체는 신체이고 개개의 감각 기관은 모종의 종합의 대행자”⁹⁾이며, “신체는 세계-에로-존재의 운반도구이고, 신체를 가진다는 것은 생명존재에 대하여 일정한 환경에 가담하는 것이며 어떤 기획과 일체가 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참여”¹⁰⁾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메를로 폰티는 근대 철학이 세계를 정신과 몸, 주체와 객체, 본질과 현상 등 대립적으로 구분해서 파악하려 했던 이원론을 극복하고, 살아있는 인간의 몸은 구체적인 대상성과 주체성이 열리면서 서로 만나 지각이 이루어지는 ‘현상적 장’이라고 규정하면서, 의식이 몸을 통해서만 세계의 일부로서 세계 안에 존재할 수 있음을 밝혔다.¹¹⁾ 즉, 인간의 몸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생생한 징표로서, 관념 이전의 생명이며, 정신 이전의 생리이고, 사회 이전의 개체인 것이다.¹²⁾ 한편, 미셸 푸코는 ‘자연적’인 몸은 존재하지 않고 생물학적 속성도 과학 또는 그 외의 담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푸코에게 있어 몸은

야 한다고 생각한다.

8) 메를로 폰티, 류의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지성사, 2002, 705쪽.

9) 메를로 폰티, 위의 책, 702쪽.

10) 위의 책, 143쪽.

11) 위의 책, 104-120, 645쪽.

12) 정효구, 『노경의 안쪽, 시경의 심층』, 『시인세계』 26호, 문학세계사, 2008. 11, 62쪽.

“담론과 권력의 영역들이 그 자체를 각인하는 장소이자 권력의 사법적, 생산적인 관계들의 연결점 또는 극점”이다. 즉 몸은 담론과 권력의 어떤 효과, 권력의 어떤 작용이 드러나는 장소이다.¹³⁾ 요컨대, 푸코는 몸을 사회적 실천에 의해 각인되는 표면으로 이론화하였다. 그에 의하면 몸은 담론적으로 구성된 제도적 장치 속에서 작용하고, 이 장치들은 당연시되는 실천들을 낳고, 이 실천 속에서 몸의 훈육과 표준화가 이루어지며 사회적 재생산이 촉진된다는 것이다.¹⁴⁾ 이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결국 “우리의 몸은 실존하는 몸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의미가 실현된 몸”¹⁵⁾이기 때문에, 몸은 자아 정체성, 그리고 사회의 구성과 발달에 관한 질문들에 중점적으로 관련된다.¹⁶⁾

이렇게 볼 때, ‘노화된 몸’은 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현상적 장’이며,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시에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는 기본적으로 ‘노화된 몸’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예컨대, 늙음과 죽음에 대한 비탄은 노화된 몸을 지각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며, 젊음과 건강한 몸에 대한 예찬 역시 노화된 몸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즉, ‘노화된 몸’을 지각하면서 노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노인은 ‘노화된 몸’으로 인해 사회적 여러 관계망에서 소외된다. 우선, 몸이 노화되면 사회적 규율을 충분히 따를 수 없게 되므로 노동에서부터 물러나게 되며, 타인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타자와의 연대 및 사회적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노화된 몸’이다.

노화는 생물학적 변화뿐 아니라 심리적 변화 및 사회적 변화의 과정까지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과정¹⁷⁾이지만, 신체적 결함들이 심각해져

13) 강미라, 『몸 주체 권력: 메트로폴티와 푸코의 몸 개념』, 이학사, 2011, 129쪽.

14) 양운덕, 『미셸 푸코』, 살림출판사, 2003. 25-39쪽.

15) 강미라, 위의 책, 233쪽.

16) 크리스 쉘링, 임인숙 역, 『몸의 사회학』, 나남출판, 1999, 289쪽.

17) 홍숙자, 앞의 책, 30쪽.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명확하게 그 신체가 노화하고 있다고 말하게 된다.¹⁸⁾ 즉, 유기체의 파괴로 인해 겪게 되는 생물학적 변화로서의 몸의 노화가 ‘늙었음’을 가장 자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생물학적 변화에 따른 노화로 인해 몸이 이미 늙은 상태인, 즉 ‘노화된 몸’을 가진 노년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노년기의 신체적 특징은 우선 외견상 피부 및 근육, 체모, 신장과 몸무게에 변화가 생긴다. 피부는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층이 얇아지면서 얼굴과 몸의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늘어지며 얼굴의 외형에 변화가 온다. 근육 또한 얇아지고 가늘어져 힘을 못 쓰게 되는 근육 위축 현상이 급격히 진전된다. 체모는 탈색이나 탈모의 현상을 겪고, 등이 휘거나 뼈가 약해지면서 신장은 줄어들고, 몸무게는 감소하지만, 지방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감각기능이 떨어진다. 신체 감각기관의 외부 자극에 대한 감응능력이 쇠퇴하여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인식의 기회가 줄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특히 시력과 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미각, 후각, 촉각, 통각에 대한 민감도 또한 감퇴한다.

셋째, 칼슘이 고갈됨에 따라 뼈가 가벼워지고 뼈의 밀도 즉, 골밀도가 낮아져 신체 접합 부분이 약화한다. 특히 척추 사이에 있는 연골 조직들이 얇아지면서 척추가 굽고 압축되어 등이나 목 등이 굽어진다. 게다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상을 당하기 쉽고, 관절염 등의 질환이 증가하여 거동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넷째, 비뇨기관 및 생식기관의 노화를 들 수 있다. 노년기엔 비뇨기관 내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 방광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 방광의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지각의 변화로 요의가 더 잦아진다. 남성 노인의 경우 대부분 전립샘이 확대되어 요의 빈도가 높아지고, 요실금이 생기는 예도 있다. 여성 또한 폐경 이후 호르몬의 변화로 생식기관의 위축이 현저하

18) 시몬느 드 보부아르, 홍상희·박혜영 역, 『노년』, 책세상, 1994, 21쪽.

게 나타난다. 비뇨기관 및 생식기관의 노화로 인한 증상은 생식기 체모의 감소, 성 기능 장애, 요실금, 기억력 감퇴 등이 있다.

이 외 소화기, 신경계, 순환기 계통 등의 기능 퇴화로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수면장애로 불면증을 호소하는 노인이 많으며, 이가 빠지거나 잇몸이 약해져 임플란트나 틀니로 치아를 대신하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¹⁹⁾

이와 같은 노년기의 ‘노화된 몸’이 한국 현대 노년시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노년시의 범주를 ‘발화 주체가 노년인 시’와 ‘발화 대상이 노년과 관계된 시’로 나누어 두 범주에서의 ‘노화된 몸’을 살펴보면, ‘발화 주체가 노년인 시’에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화된 몸’이 직접적이며 사실적으로 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발화 주체인 노년이 ‘노화된 몸’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 비교하면, ‘발화 대상이 노년과 관계된 시’에서의 주체는 몸이 아직은 노인처럼 노화되지 않았거나 간접적으로 노화된 몸을 감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시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노화된 몸의 비애와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노년시에 나타난 ‘노화된 몸’에 대한 연구를 이와 같은 범주로 고찰하면, 발화 주체가 노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노화된 몸’에 대해서 어떤 사유를 표출하는지 그 차이를 표명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세대 간 차이의 감각을 염두에 두되, 노화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를 몸의 기관별로 나누어, 한국 현대 노년시가 노화에 따른 몸의 각 기관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형상화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루는 ‘노화된 몸’의 양상은 개별 시 텍스트 자체의 분석에 의한 것이므로 의학적 대응이

19) 노년기 노인의 생물학적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특징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여 정리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영곤, 『인간은 어떻게 늙어갈까: 노화생물학』, 아카데미서적, 2000; 홍숙자, 앞의 책; 이호선, 앞의 책; 게리 크리스토퍼, 오수원 역, 김채연 감수, 앞의 책.

아니라 시적 대응임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그러나 노년시의 이러한 시적 대응은 고령화 사회에 시의 쓸모없음의 가장 큰 쓸모, 즉 무용지대용(無用之大用)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3. 노화된 몸의 양상과 시적 대응

1) 외견상의 노화에 대한 비탄과 예찬의 표현

사람의 나이를 예측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외모이다. 우리가 어떤 이를 노인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기준 또한 외견상 노화의 정도에 달려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이 어떤 사람을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기준은 “주름살이 많아요”, “머리가 하얗잖아요”, “못생겼어요”, “팔에 검은 게(검버섯) 났어요”, “옷이 할아버지 옷이에요”, “이가 빠졌어요”와 같은 외모였다고 한다.²⁰⁾ 아이들이 노인을 인식하는 이러한 기준은 노인들 스스로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부천시 오정구 노인복지관 노인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물었더니 ①흰머리와 주름살이 늘었을 때, ②몸이 자주 아플 때, ③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늙었다고 말할 때, ④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일 때, 이와 같은 순으로 답변하였다고 한다.²¹⁾ 이렇게 볼 때, 노화를 인식하는 일차적인 기준이 외견상의 노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피부가 점점 메마르고 혈색이 사라지며, 탄력성을 잃고, 검버섯이 생긴다거나 주름이 늘어나고 주름의 골이 깊어질 때, 흰머리가 많아지고 탈모 현상이 심해질 때, 키가 줄어들고 몸무게가 급감할 때 등,

20) 서울 흥제초등학교 2학년 남아 10명과 여아 10명에게 실행한 조사. 이호선, 앞의 책, 23쪽.

21) 이호선, 앞의 책, 24쪽.

육안으로 보이는 외견상의 노화된 몸은 자신과 타인에게 늙었음을 인식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현대 노년시에는 이와 같은 외견상의 노화된 몸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 우선 오탁번의 <노약자석에서>라는 시를 보자.

한창 나이에는
월남이나 중동에서 한가닥 했을
눈썹 짙은 할아버지가
거머리가 달라붙은 손으로
무릎을 문지르며
시든 파처럼 눈을 감네

틀니가 헐거워져서
두 볼이 움푹한 할머니는
마분지에 크레용 문지르듯
입술에 루즈도 성글게 바르고
선 풀주머니 같은 브래지어를 했는지
좁다란 가슴이 꽤 붓긋하네

찌르레기 울 듯
옆자리에서 나는
핸드폰 벨소리를 듣고는
아직도 기다리는 반가운 소식 있는 양
저마다 핸드폰 꺼내다가
싱겁게 웃네

퇴약별같이 빛나던 힘
오간 데 없고
패잔병의 막사처럼 고즈넉한
지하철 3호선 전동차의 노약자석

한국 남성 평균 수명이 되려면

아직 10년이나 남은
젊은 오빠 오탁번이
제 자화상인 줄도 모르고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보네

- 오탁번, <노약자석에서> 전문, 『손님』, 황금알, 2006

위 시에는 시인의 이름이 텍스트 표면에 나타나 있지만, 시인 자신을 객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6년에 『손님』이 출간되었고, 2005년 기준 한국 남성 평균 수명이 75세였는데 “아직 10년이나 남”았다는 것으로 보아, 이 시는 1943년생인 오탁번이 64세쯤에 쓴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65세가 넘으면 경로석을 점할 수 있으므로 시인 또한 곧 노약자석에 앉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도 이 시는 자신을 객관화하여 “젊은 오빠 오탁번”이 “제 자화상인 줄도 모르고”,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려져 있다. 다시 말해, 생산 주체가 텍스트에서 시적 대상이 되어 있고, 발화 주체가 대상인 오탁번을 초점화²²⁾하여 그의 눈으로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노인들의 노화된 몸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노화된 몸에 비교하면, 자신은 아직 젊다는 안도감과 그러나 머지않아 자신 또한 그들과 같은 몸이 될 것이라는 비탄의 감정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손은 “거머리가 달라붙은” 듯하고, 무릎이 좋지 않은지 그 손으로 “무릎을 문지르”고 있으며, 눈은 “시든 파” 같다. 할머니 역시 “뜰니가 헐거워져

22) 초점화(focalization)는 제라르 주네트가 소설의 서술행위를 살피면서 ‘누가 보느냐’와 ‘누가 말하느냐’, 곧 인식 주체와 발화 주체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시한 용어이다. 초점화는 보는 행위에 한정되는 용어로 서술되는 대상을 보는 주체 곧 시각 주체(인식 주체, 초점자)를 말하며, 발화 주체 곧 서술자와는 구별되는 용어이다. 최시한, 『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학과지성사, 2010, 40쪽 참고.

서/ 두 볼이 움푹”하고, 탄력을 잃은 입술은 “마분지” 같아서 “루즈”가 “크레용 문지르듯” “성글게” 발라져 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핸드폰 벨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소리를 감지하는 청력까지 노화되어 벨소리를 “찌르레기”가 우는 것 같다고 느낀다. 이처럼 위 시에는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고령 노인들의 외견상의 ‘노화된 몸’이 초점화된 ‘오탁번’의 시선에 의해 직유법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들 몸의 외견상의 노화는 ‘거머리, 시든 사과, 마분지, 패잔병’과 같이 부정적 이미지의 보조 관념들로 표현되어 있고, 그것이 “한창 나이” 때의 “한가닥 했을” 몸과 “땀약별같이 빛나던 힘”과 대비되면서 더욱 초라하게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앉아 있는 노약자석은 “기다리는 반가운 소식” 하나 없이 “패잔병의 막사처럼 고즈넉”하다. 다시 말해,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고령 노인들의 ‘노화된 몸’이 외견상 마치 싸움에서 진 병사처럼 힘없고 초라하며 외로워 보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노약자석에서>는 주체가 오탁번을 초점화하여 그의 시선으로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고령 노인들의 ‘노화된 몸’을 직유법으로 형상화하고, 그것이 머지않은 자신의 “자화상”임을 모르고 있는 초점자 오탁번을 비웃으면서, ‘노화된 몸’을 가진 고령 노인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동시에 머지않아 그들과 같은 몸이 될 자신에 대한 비탄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노년시라 하겠다.

아내가
세븐에잇 염색약으로
흰 내 머리칼 물들이는
거울 앞에 서면

내 마음은
술진 장발 날리며
위험한 벼랑 곧바로 뛰어내리던
까마득한 시공時空으로

타임머신 타고 달려간다

하숙비 없어서 떠돌던 부랑浮浪도
번민의 연옥煉獄도 있었느니라
사랑하는 사람 보고싶어 울던
불면의 밤도 있었느니라
밤새워 쓰고 찢는 파지破紙와
잉크 새는 만년필도 있었느니라

아내여
형언할 수 없는 이 적막寂寞,
세븐에잇으로 물들여 준
감쪽같은 머리칼로
그때 그 벼랑 다시 찾아보아도

선 내 나는
내 생애生涯의 서술어敍述語처럼
빛나던 만년필 축 아예 녹나고
검버섯 포자孢子만 피어오른다

- 오탁번, <타임머신> 전문, 『손님』, 황금알, 2006

몸의 노화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는 흰머리이다. 남녀 구분 없이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희어지는 현상을 경험한다. 그러나 주름에 비교하면 흰머리는 염색을 통해 쉽게 가릴 수 있다. 실재 염색으로 흰머리를 가리면 훨씬 젊어 보인다. 노인의 외모 관리요인 중 헤어스타일(머리모양, 머리카락 색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조사도 있다.²³⁾ 그만큼 흰머리는 외견상의 노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며, 대부분의 노인은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싶을 때 염색을 한다.

오탁번의 <타임머신>은 노년의 남성이 흰머리를 염색하면서 느끼는

23) 김근자, 『고령화 여성의 모발 염색 실태와 염색기술 만족도 조사』, 한성대학교 대학원 헤어디자인전공 석사논문, 2010, 46쪽 참고.

감정을 발화하고 있는 노년시다. 이 시의 발화 주체는 “거울 앞에 서”서 “아내가/ 세븐에잇 염색약으로” 자신의 흰 머리를 “물들이는” 모습을 보고 있다. “염색약으로 물들여 준/ 감쪽같은 머리칼”을 보며 노년의 주체는 “타임머신”을 타고 잠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그때의 나날을 생각한다. “술진 장발 날리며/ 위험한 벼랑”도 곧바로 뛰어내리고, “하숙비 없어서 떠돌던 부랑도/ 빈민의 연옥도” 사랑으로, 습작으로 지새우던 “불면의 밤”도 떠올려 본다. 그러나 이 시 전반부의 밝고 경쾌했던 어조는 시의 후반부에 이르러 어둡고 차분해진다. 그것은 노년의 주체가 염색을 통해 흰머리를 가리고 젊은 날의 머리카락 색을 되찾았다 해도, 이제는 자신의 노화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생애”가 “서술어처럼” 마지막에 와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체는 그러한 자신의 노후의 삶을 후각적 심상을 통해 “쉰내” 난다고 표현하고 있다. 흔히 ‘홀아비 냄새’라고 하는 특유의 노인 냄새가 있다. 노인성 냄새의 원인은 노화에 따라 각종 대사 기능이 저하되면서 체외로 배출되어야 할 각종 노폐물이 축적되고, 40대 이후 체내에 생성되는 ‘노네날(Nonenal)’이라는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⁴⁾ 이 시의 발화 주체는 자신의 노화된 몸에서 나는 냄새를 노후의 삶의 냄새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노화된 몸이 노후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빛나던 만년필 촉 아예 녹나고/ 검버섯 포자만 피어오른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노년의 주체는 창작의 열정도 식어버리고, 검버섯만 피어나는 노화된 몸을 보며 자신의 늙음이 “적막”하다는 비탄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노인은 어두운 방 안에 혼자 놓여 있다

며칠 전에 딸이 사놓고 간 꿀
 며칠 동안 아무도 까먹지 않은 꿀

24) 최정연, 『노년의 체취, 노인 냄새 없애는 방법은?』, 『헬스투데이』, 2017.10.12., <http://www.hidoc.co.kr/news/healthtoday/item/C0000295833>

먼지가 내려앉는 동안 움직이지 않는 꺾
움직이지 않으면서 조금씩 작아지는 꺾
작아지느라 몸속에서 맹렬하게 움직이는 꺾
작아진 만큼 찌그러져 주름이 생기는 꺾
썩어가는 주스를 주름진 가죽으로 끈질기게 막고 있는 꺾

어두운 방 안에 꺾 놓여 있다

- 김기택, <꺾> 전문, 『소』, 문학과지성사, 2005

김기택의 <꺾>은 발화 주체가 현상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발화 주체가 노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발화 대상이 노년과 관계된 시’이다. 숨어있는 발화 주체는 “어두운 방 안에 혼자 놓여 있”는 노인을 “꺾”에 비유하며 노인을 묘사하고 있다. “딸이 사놓고 간 꺾”은 딸의 호의적인 행동(예컨대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모셔다 놓는 일)이 오히려 노인을 혼자 있게 만든 원인이 되었음을 비유하고, “아무도 까먹지 않은 꺾”은 아무도 노인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음을 비유한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조금씩 작아지”며 “찌그러져 주름이 생기”고 “썩어가는 주스를 주름진 가죽으로 끈질기게 막고 있는 꺾”은 극도로 노화되어 가는 노인의 늙은 몸에 대한 비유이다. 즉,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이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아무도 먹지 않아 홀로 썩어가는 꺾의 모습을 통해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연 전체에 나타나 있는 ‘~꺾’과 같은 대구법, ‘움직이지 않는 꺾/ 움직이지 않으면서, 작아지는 꺾/작아지느라’ 등과 같은 연쇄법, ‘움직이지 않다가 작아지고, 찌그러지고, 주름이 생기’는’ 등과 같은 점층법을 통해 시간이 갈수록 비가역적으로 나빠지는 노인의 외견상의 노화 과정을 비유적 형상화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퇴화하여 가는 노인의 몸이 썩어가는 꺾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덩치 큰 팔공산이 단풍으로 꿈틀꿈틀대는 날

함께 동화사에 오른 시인협회 시인들과 같이 거닐며
둘씩 셋씩 단풍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열 명이 같이 찍기도 했다.
안면 있는 이들이 있어
가을이라 그런지 전보다 까칠해지셨다고 하고
어떤 이는 사진보다 더 주름이 느셨다 하곤
괜히 쑥스러워했다.
머리카락과 체구 줄어든 몸을 아래위로 훑어보며
말없이 쓸쓸한 눈 짓는 이도 있었다.
아주 쓸쓸치는 않은, 쓸쓸한 미소로 답했다.

열을 읽으면 열을 잊고
일주문에서 15분, 조금 빨리 올라오는 데 숨이 턱 밑에 차니
마음과 몸을 어느 풍경 속에 탱탱하게 지탱할 수 있겠는가?
이제 단풍마저 떠나보내고, 오는 겨울날
단풍 대신 흰 눈에 덮인 산들이 숨죽이고 내려다보고 있는
인제군 용대리 덕장 활대에 슬그머니 올라가
짧은 햇빛과 된바람 속에 얼었다 녹았다 푸석푸석 마르며
속맛이 든다는 황태나 될 수 있을까?

- 황동규, <팔공산 황태> 전문, 『연옥의 봄』, 문학과지성사, 2016

위 시의 생산 주체와 발화 주체가 같다고 보고, 시집 『연옥의 봄』의 출판 연도를 참고하면, <팔공산 황태>는 1938년생인 황동규 시인이 79세쯤에 쓴 시로 보인다. 79세면 고령 노인에 속하기 때문에 외견상의 노화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안면 있는 이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며 “전보다 까칠해지셨다고 하고”, “사진보다 더 주름이 느셨다”라고 인사말을 건넨다. “머리카락과 체구 줄어든 몸을 아래위로 훑어보며/말없이 쓸쓸한 눈 짓는 이도” 있다. “시인협회 시인들”과의 등반이니 같은 시인으로서 중견 시인의 늙음이 안타깝게 여겨졌을 것이다. 외견상 노화된 몸에 대한 지적이 좋은 인사말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그런 말이 나왔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괜히 쑥스러워”하고, “쓸쓸한 눈”

인사를 건넨 것일 거다. 이러한 타인의 반응에 대해 노년의 주체는 “아주 쓸쓸치는 않은, 쓸쓸한 미소로 답했다”라고 한다. 이러한 역설적 표현은 이제 노화된 몸을 스스로 수궁한다는 의미이면서, 그래도 한편으론 그것이 달갑지 않다는 마음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연에서 주체는 자신의 노화된 몸의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발화한다. “열을 읽으면 열을 잊고” “조금 빨리” 산을 오르면 “숨이 턱밑에 차니” “마음과 몸을” 이젠 “탱탱하게 지탱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토록 노화된 자신이 “짧은 햇빛과 된바람 속에 얼었다 녹았다 푸석푸석 마르며/ 속맛이 든다는 황태나 될 수 있을까?” 묻는다. 기왕에 늙어 푸석푸석 마르는 육체라면 영혼이라도 진한 사람이 되어 나름대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년의 시인은 자신의 몸이 많이 노화되었음을 타인의 말이나 시선을 통해 더더욱 명확하게 체감하고 있으며, 기왕에 노화된 몸을 달게 받아들이고 “팔공산 황태”처럼이라도 여생을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발화 주체가 노년인 시에서의 ‘외견상의 노화된 몸’은 타인의 시각을 통해 표현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체가 직접 체감하고 있는 몸의 노화가 보다 직접적이며 사실적으로 발화되고 있다. 결국, ‘외견상의 노화된 몸’은 노인의 정체성을 가장 여실하게 드러내는 ‘현상적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노년시가 외견상의 노화된 몸에 대해 안타까움과 연민, 비탄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면, 다음의 노년시는 오히려 노화된 몸에 대해 예찬하고 있다.

반쯤 감긴 눈가로 콧잔등으로 골짜기가 물려드는 이 있지만
 나를 이 세상으로 처음 데려온 그는 입가 사방에 골짜기가 물려들었다
 오물오물 밥을 씹을 때 그 입가는 골짜기는 참 아름답다
 그는 골짜기에 사는 산새 소리와 꽃과 나물을 다 받아먹는다
 맑은 샘물과 구름 그림자와 산뿔나무와 으름덩쿨을 다 받아먹는다

서울 백반집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그는 골짜기를 다 데려와
오물오물 밥을 씹으며 참 아름다운 입가를 골짜기를 나에게 보여준다
- 문태준, <老母> 전문, 『가재미』, 문학과지성사, 2006

주름은 인간의 노화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외견상의 노화 징표이다. 그래서 일부 노인들은 주름살을 펴는 크림을 바르거나 보톡스와 같은 주사제를 맞거나, 아예 얼굴을 쪽 당겨서 주름진 곳을 펴는 성형을 하기도 한다. 그만큼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가리고 싶어 한다. 그것은 대중의 인식이 ‘젊음=아름다움, 늙음=추한 것’이라는 등식에 젖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태준 시인은 위의 시에서 주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우선 인간의 주름을 “골짜기”로 은유하고, “반쯤 감긴 눈가로 콧잔등으로 골짜기가 물려드는 이”가 있지만, 주체의 “노모”는 “입가 사방에 골짜기가 물려들었다”라고 표현한다. 입 주위에 생기는 주름은 한자의 팔(八)자를 닮았다 해서 팔자 주름이라 부르는데, 발화 주체의 노모는 이 팔자 주름이 깊은 것 같다. 그런데도 주체는 그 노모의 팔자 주름을 “골짜기”로 형상화하고 그 “골짜기”에 “산새 소리와 꽃과 나물”과 “맑은 샘물과 구름 그림자와 산뿔나무와 으름덩쿨”이 살고 있어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그 노모의 삶의 이력을 표현한 것이며, 주체 또한 노모의 얼굴에 골짜기를 만드는 데 한 몫했을 것이다. 이 시의 주체가 노모의 입가 주름을, 특히 노모가 “골짜기를 다 데려와/ 오물오물 밥을 씹”을 때 그 “입가” “골짜기”가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노모의 그 노화된 몸이 결국 어머니의 한 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가 보여주는 이러한 인식은 노화된 몸을 죽음과 연결하면서 추하고 비참하게 여겨왔던 종래의 인식을 반성하게 한다. 요컨대, 이 시는 “오물오물 밥을 씹을 때” 움직이는 주름살의 역동성과 삶의 이력에 주목함으로써 노화된 몸을 오히려 경이롭고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늙음의 징후인 주름을 살아있음의 가장 적극적인 행위인 섭식과 연결하고 있는 것은 그

렇게 잘 드시면서 아직 살아계셔 주심에 대한 감사함과 안도감의 표현이기도 할 것이다.

이 작품 외 이정록의 노년시 <꽃사과의 주름살>에서도, “주름살이란 것/ 내부로 가는 길이구나/ 연 살처럼, 내면을 버텨겨주는 힘줄이구나”라는 표현으로 주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준 바 있다.²⁵⁾

장미처럼 피다가 무서리에 젖어
한 점 노년으로 머무는 날
하나씩 늘어나는 나이테
지그시 세월을 머금은 노송.

(중략)

별빛이 머리카락에 드리우는
허욕도 허영도 사그라지고
순수만 남아 평온한 가슴 내미는
순백의 무채색, 성성백발.

(중략)

가없는 저 하늘만큼
바다처럼 깊고
고목처럼 늙은 노인은
커다란 보고(寶庫)이다.

인생의 최고봉
제2의 청춘,
젊음으로 승화하라
노년이여! 영원하라.

- 탁여송, <노년예찬> 부분, 『월간 시사문단』 통권171호, 시사문단사,
2017.7

25) 이현정, 앞의 논문, 270-272쪽 참고.

위의 시에서 발화 주체는 나이 들면서 늘어나는 주름살을 “하나씩 늘어나는 나이테”로, “노년”을 “지그시 세월을 머금은 노송”이라고 표현하고, 노년의 “성성백발”을 “허욕도 허영도 사그라지고/ 순수만 남아 평온한 가슴 내미는/ 순백의 무채색”이라고 표현하면서 노년의 노화된 몸을 오히려 젊고, 순수하며, 깨끗한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노화된 몸을 죽음의 도래로 보면서 비탄의 감정으로 발화하던 시들과 달리 위의 시는 오히려 노년을 “커다란 보고(寶庫)”이며 “인생의 최고봉”이라고 인식하면서 “노년이여! 영원하라”고 외치며 노년을 “예찬”하고 있는 노년 시인 것이다.

노화된 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김남조의 <노약자>에서도 “치수 혈령하여 편한/ 오늘의 내 의복이네”와 같이 야원 몸에 대한 비탄보다 편안함의 긍정으로 발화된 바 있다.²⁶⁾

지금까지 노년시에 나타난 ‘외견상 노화된 몸’에 대한 주체의 인식과 그것의 형상화 방식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외견상 노화된 몸’은 늙음을 인정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 노화된 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이미지나 비유적 표현을 통해 비탄의 감정을 드러내는가 하면, 긍정적 표현을 통해 노년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며 노년을 예찬하고 있는 시들도 있었다.

2) 감각기관의 노화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감각적 표현

시인에게 있어 중요한 덕목 중이 하나는 예민한 감각이다. 감각이란 눈, 코, 입, 귀, 피부 등의 신체 기관을 통해 안팎의 자극을 느끼거나 알아차리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감각한다는 것은 언제나 신체와의 관련을 포함한다.”²⁷⁾ ‘시가 몸의 언어’라는 비유적 언명은 시가 감각적 장

26) 이현정, 앞의 논문, 267-268쪽 참고.

27) 메를로 폰티, 앞의 책, 105쪽.

(場)들의 상호 연관 혹은 의사소통을 통해 정립되는 신체의 발화 방식이라는 뜻이다.²⁸⁾ 그런 면에서, 시 쓰기는 ‘신체의 감각들을 풀어쓰는 것’²⁹⁾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인에게 감각은 중요한 덕목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감각기관의 노화로 감각기능 또한 퇴화한다는 사실이다. 감각기관이 노화되면 시력이 저하되어 물체가 잘 보이지 않고, 청각 기능 역시 쇠퇴하여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되며, 후각이나 미각 등의 구별능력이 감소하여 냄새와 음식 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감각기능이 저하되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인식이 둔해져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더욱이 시인들에게 감각기관의 노화는 시적 재능 하나를 잃게 되는 일이므로 실제 노년기 시인들의 시를 살펴보면 감각기관의 노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주 나타난다. 황동규의 시 <앤젤라 휴잇의 파티타>(『연옥의 봄』, 문학과지성사, 2016)에는 “죽고 사는 일보다 감각 잃는 게 더 못 견디겠는 저녁”이라는 구절이 있고, 구이람의 <나는 누구일까>(『걷다』, 시와시학, 2011)에는 “두 눈, 두 귀가 멀쩡해야 책이라도 볼 텐데”라는 구절이 있다. 모두 감각기관의 노화에 대해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또한 감각기관의 노화 역시 수궁할 수밖에 없음을 안다.

지면의 한계로 여기서는 한국 현대 노년시에 나타나는 감각기관의 노화 중 청각과 시각의 노화에 대해 발화하고 있는 다음 시들을 통해 감각기관의 노화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나이 육십
가는귀 먹어
오는말

28) 권혁웅, 『시론』, 문학동네, 2010, 531쪽.

29) 손현숙, 『김명인 시에 나타난 감각의 변용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14, 14쪽.

알아듣지 못하네

내 핸드폰 벨 소리는 듣지 못하고
옆 사람 핸드폰 벨이 울리면
내 핸드폰 꺼내다가
나 홀로 싱거워지네

이해나 분석은 엄두도 못 내고
이냥저냥 지레짐작
시늉하며 웃네

가는귀 먹어
오는 말 들리지 않는
아아
이순(耳順)의 아침

- 오탁번, <가는귀> 전문, 『손님』, 황금알, 2006

위 시의 발화 주체의 나이는 “육십”이다. 사람의 나이 예순 살을 이르는 또 다른 말로 “이순(耳順)”이 있다. 그것은 공자가 60세가 되어서 천지 만물의 이치에 통달하고, 듣는 대로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서 온 말이다. 그런데, 위 시의 발화 주체는 “나이 육십”에 “가는귀”가 “먹어/ 오는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자 “이순”의 의미를 본뜻과는 달리 소리 뜻으로만 받아들인다. 즉, 귀가 순해져서 잘 들리지 않는 나이가 “이순(耳順)”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유희는 ‘그러니까 나이 육십에 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야라는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신만이 빨리 늙고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나 그러한 위안도 현실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년의 주체는 “가는귀”가 먹어 자신의 “핸드폰 벨 소리”를 듣지 못하고, 타인의 벨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도 타인의 말에 대한 “이해나 분석은 엄두도 못 내고/ 이냥저냥 지레짐작/ 시늉”만 할 뿐이며, 소통의 대

부분을 ‘웃음’으로 무마하고 있다. 이처럼 청각기관의 노화는 대인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그것이 결국은 노인의 소외를 불러온다.

말소리가 헝클러 흘러놓고 되짚곤 하는 나에게
너는, 보청기라도 써보지 그러냐고 성가셔하지만
이런 소외 나는 어느새 담담해졌다
소리가 숨죽인 집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다
이 수행마저 피정에 들 때 올 거라 생각하면

무섭다, 내 안의 공명 부쩍 자라버린 것이
갑자기 머리 전체로 왕왕거리는 난국이
서른몇 살에는 농아에 들까 봐 수화부터 익혀둘까 생각했다
이제 들을 만큼 들었으니
어렵사리 되질할 수고 접었는데도 말들의 저 농밀

한평생 상대를 왼쪽에 세우려고 애썼다
들리는 한쪽마저 이명이 짙어
나는 좌파도 아닌 적당파, 듣고서 얼버무려도
이웃들 짐짓 지나쳐줬을까
떡통인 오른쪽에 닿아 딱딱하던 탄식들
불러도 응답이 없어 낭패하는 건 내가 아니라 그?

표정조차 일그러뜨리는 상대를 읽었을 때의 열패감을
내가 더 못 견뎌한다는 것 그대는 알까!
귀 막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고요는 온다
내게 보청기 권하던 살뜰한 친구도 떠나갔다
이 보행은 금 간 항아리나 등에 지고
번개 지나야 우는 우레 출렁거리며 따라가는 일
- 김명인, <번개 지나고 우레> 전문, 『여행자 나무』, 문학과지성사, 2013

위 시의 발화 주체는 “서른 몇 살”부터 청력이 좋지 않았는지 후에 “농아에 들까 봐 수화부터 익혀둘까 생각했다”라고 한다. “한평생 상대

를 왼쪽에 세우려고 애썼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주체는 오래전부터 왼쪽 귀로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노화로 인해 청력이 더 나빠지면서 주체는 타인의 “말소리가 헝클러 흘러놓고 되짚곤” 하며, “공명이 부쩍 자라” 외부의 소리가 “왕왕거리는 난국”으로 접어들었고, “들리는 한쪽마저 이명이 짙어”졌다. 주체는 이러한 청각의 노화가 이제는 “무섭다”라고 한다. “이제 들을 만큼 들었으니/ 어렵사리 되질할 수고 접었는데도 말들의 저 농밀” 앞에서 노년의 주체는 다시 “열패감”을 느낀다. 그러나 4연에 이르러 노년의 주체는 이러한 감각의 노화를 새롭게 인식한다. 그것은 주체에게 “보청기를 권하던 살뜰한 친구”의 죽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주체는 “친구의 죽음을 보며 누구에게나 오는 고요를 생각한다. 시인이 생각하기에 사는 동안의 청각은 죽어서까지 들고 가는 실감은 아닌 것이다. 누구나 가야 하는 죽음의 길에서는 모두 소리를 놓아야 한다.”³⁰⁾ 결국, 노년의 주체는 어차피 죽음에 이르면 누구나 모든 소리를 놓게 되어 있으니, 지금 밖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해서 홀로 서러워할 필요도 열패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인식에 다른 것이다. 그래서 노년기 주체의 남은 “보행은 금 간 향아리나 등에 지고/ 번개 지나야 우는 우레 출렁거리며 따라가는 일”밖에 없다. 여기서 “금 간 향아리”란 어딘가 장애를 겪고 있는 노화된 몸을 상징하는 동시에 등이 굽은 노인의 외형적 형상화이기도 하다. 또한 “번개 지나야 우는 우레 출렁거리며 따라가는 일”이란 친구의 죽음을 보고서야 깨닫게 된 큰 각성을 등에 지고 힘차게 남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라 할 수 있다.

떨어지는 시력을 벌충하려
 시선 머무는 데마다 초점을 만들다 보면
 세상이 갑자기 진해질 때가 있다.
 흰머리에 등산복 입은 노인 하나 놀란 듯 서 있고
 그 바로 앞에 검은색 차가 빼이익.

30) 손현숙, 앞의 논문, 106쪽.

천만다행! 화요일 저녁이면 무심히 걷는 서교동거리
문득 서녘에 검붉은 해와 하늘을 띄워놓고
여기저기 물 고인 검붉은 갯벌 깔아놓고
해 막 지기 전 바다가 된다.
지평선인가 수평선인가 그냥 가로금인가
위아래 검붉은 색채 속으로 번져 지워지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언젠가 나와 친구들이 가로금처럼 걷다가
하나가 된 검붉은 땅 검붉은 하늘로 스며들어가
하나가 되리라는 이 느낌!
흥치만은 얇으이.

- 황동규, <서교동에서-화요일 저녁마다 친구들이 서교동 한 밥집에
모여 술 곁들인 식사를 한다.> 전문, 『연옥의 봄』, 문학과지성사, 2016

위의 시에서는 감각기관의 노화 중 시각의 노화로 겪게 되는 경험과 그것에 대한 인식이 발화되고 있다. <서교동에서>라는 제목에는 “화요일 저녁마다 친구들이 서교동 한 밥집에 모여 술 곁들인 식사를 한다.”는 부제가 길게 달려 있다. 이러한 부제는 제목이 <서교동에서>인 이유 및 그 제목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기보다는, 노년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타인과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과시이자 그 친구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5행에서 제시되는 “흰머리에 등산복 입은 노인 하나 놀란 듯 서 있고/ 그 바로 앞에 검은색 차가 빼이익.”하고 간신히 선 이 위험천만한 사건의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발화 주체 자신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화요일 저녁” 주체가 “서교동 거리”를 “무심히 걷”다가 “떨어지는 시력을 벌충하려/ 시선 머무는 데마다 초점을 만들다 보면/ 세상이 갑자기 진해”져 앞에 무엇이 오는지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시각의 노화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천만다행!”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자신이 서 있는 공간을 둘러보니 “서교동 거리”가 “문득 서녘에 검붉은 해와 하늘을 띄

워놓고/ 여기저기 물 고인 검붉은 갯벌 깔아놓고/ 해 막 지기 전 바다가 된다.”고 한다. 시각의 노화로 빛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특정 색을 구별하기 힘들어지면서 주체에게 세계는 “지평선”인지 “수평선”인지 횡단보도의 “가로금”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위아래 검붉은 색채 속으로” 모든 선이 “번져 지워지고/ 하늘과 땅” 또한 “하나가 된다.” 주체는 이렇게 노화된 몸이 결국 죽음에 이르면 “나와 친구들” 역시 “가로금처럼 걷다가” “검붉은 땅 검붉은 하늘로 스며들어가/하나가 되리라는” 느낌을 받는다. “해 막 지기 전” 세상 모든 것이 “검붉은” 색 하나로 스며들 듯이, 주체는 노화된 몸을 가진 자신과 친구들 또한 죽음의 문턱에서 “검붉은” 자연 속으로 스며들어 자연과 “하나가 되리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늙은 몸이 자연과 합일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니 노화된 몸이 “흉치만은 앓”은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현대 노년시에 나타난 감각기관의 노화 중 대표적으로 청각과 시각의 노화에 대한 주체의 인식과 그것의 형상화 방식을 살펴 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세 편의 노년시에서, 청각의 노화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큰 장애가 되는 요인이고, 그로 인해 느끼는 노인의 소외감이 표현되고 있었지만, 노년시의 주체들은 청각의 노화로 심한 갈등을 겪기 보다는 스스로 그러한 몸의 노화를 수긍하는 자세를 보였다. 시각의 노화는 생활의 불편함을 가져오고 때론 물체나 빛과 색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위험한 일을 겪기도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통해 두려움을 지우고 있었다.

3) 골조직의 노화에 대한 고통의 부각과 교훈적 표현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골밀도(골량)가 낮아지는데, 여성은 최대 30~40%, 남성은 20~30%가량 손실한다.³¹⁾ 젊은이와 비교하면 노인은 골밀도가 낮아 충격이 가해졌을 때 뼈가 부서질 확률이 높으며,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의 에스트로젠 감소로 뼈 손실 속도가 남성보다 높다. 골조직이 노화되면, 특히 골다공증과 관절염에 걸리기 쉬운데, 골다공증을 앓는 사람의 자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부정해지고, 관절염은 통증을 가져와 거동과 이동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힘든 육체노동에 종사했던 사람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³¹⁾

다음 시들을 통해 살펴볼 한국 현대 노년시에 나타나는 골조직의 노화에 대한 사유는, 잠재적 노인이 골조직의 노화로 거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시적 상상력으로 발화하거나, 골조직이 노화된 노인의 직접 발화가 생산 주체와 가까운 주체에 의해 전달되고 있다. 우선 김기택의 <계단 오르는 노인>을 보자.

내가 열 계단 오르는 사이
한 계단.
가벼운 내 열 계단 위에서 늙고 거친 숨과 함께 내딛는
또 한 계단.
노인은 무릎 관절에게 심장에게 묻는 모양이다,
괜찮으냐고,
가늘고 예민한 관절의 저울 위에 위태롭게 엮혀진
이 뚱뚱한 허공의 무게를
한 계단만 더 올려줄 수 있겠느냐고
관절이 신음같이 뿔뿔거리는 소리로
겨우 허락하는 사이
쓸데없는 무게만 보태면서 거저 올라온 머리통은
계단 주변의 도로며 교회며 하늘을 마지막인 듯 한번 둘러보는
또 한 계단.
세월은 튼튼한 다리를 가진 젊은이들처럼
바로 앞에서 열 계단 스무 계단씩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31) 홍숙자, 앞의 책, 73쪽.

32) 케리 크리스토퍼, 오수원 역, 앞의 책, 47쪽.

큰질 같은 한 호흡.
또 물음.
또 가늘게 삐걱거리는 대답.
또 한번의 하늘 그리고
또 한 계단.
숨 한번에도 무게가 느껴지는 경지.
한 계단에 하나의 생이 느껴지는 경지.
뼈에 살 한번 붙이는 것
살에 삶 한번 붙이는 것
삶에 무게 한번 붙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무릎 관절의 바늘 하나에 온몸이 찢릴 때마다 깨닫는 경지.
산동네로 가는 길고 좁고 구불구불한 계단은
깊은 주름처럼 쭈그러져 있고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내 열 계단 옆에서
머리카락 한 올, 실핏줄 한 가닥, 주름 한 줄, 땀 한 방울, 때 하나의
무게까지
남김없이 관절 하나에 실으며 오르는
또 한 계단.

- 김기택, <계단 오르는 노인> 전문, 『껌』, 창비, 2009

김기택은 같은 시집의 <한가한 숨막힘>에서도 골조직의 노화에 대해 발화하고 있는데, 위의 시와 같이 노인의 느린 걸음을 “튼튼한 다리를 가진 젊은이들”의 빠른 걸음과 대비함으로써 골조직의 노화로 겪게 되는 고통과 불편함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위 시에서 발화 주체는 “산동네로 가는 길고 좁고 구불구불한 계단”을 오르는 노인이 “한 계단”을 겨우 오를 때, “열 계단 오르는” 잠재적 노인, 즉 아직은 젊은 사람이다. 그는 노인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계단 오르는 노인”을 관찰하고 있으며, 시적 상상력으로 그 노인의 고통 및 무게를 자신과 대비하며 발화하고 있다. 주체는 “가벼운 내 열 계단 위에서 늙고 거친 숨과 함께 내딛는” 노인의 “또 한 계단”을 노인이 “무릎 관절에게 심장에게 묻는 모양”이라고 상상한다. “괜찮으나” 묻고 “이 뚱뚱한 허공의 무게를/ 한 계단

만 더 올려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해 가면서 “가늘고 예민한 관절”을 달래며 조심조심 계단을 오르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관절이 신음 같이 뼈거덕거리는 소리로/ 겨우 허락”하면 노인은 “한 호흡”으로 고맙다며 “큰 절”을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노인이 노화된 골조직과 대화를 나누며 계단을 오르고 있다는 상상은 의미심장하다. “튼튼한 다리를 가진 젊은이들”은 자신의 젊은 몸이 얼마나 감사한 몸인지 생각할 틈 없이, 자신의 몸과 대화 한번 할 틈 없이 “오르락내리락” 가볍게 바빠 다닌다. 노인처럼 노화된 몸이 되어서야 튼튼한 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 주체는 자신의 몸이 노화되는 경험 이전에, 골조직이 노화된 노인을 보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있다. “숨 한번에도 무게가 느껴지는 경지/ 한 계단에 하나의 생이 느껴지는 경지/ 뼈에 살 한번 붙이는 것/ 살에 살 한번 붙이는 것/ 삶에 무게 한번 붙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무릎 관절의 바늘 하나에 온몸이 찢릴 때마다 깨닫는 경지”를 읽어 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체는 골조직의 노화로 관절이 손상되어 걷는 것과 계단 오르는 것을 힘들어하는 노인을 통해 자신을 비롯한 잠재적 노인들에게 튼튼한 몸으로 한 걸음을 떼고 한 계단을 오르는 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노인들의 고통을 시적 상상력으로 보여줌으로써 젊은이들이 노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병원에 갈 준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여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녘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따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군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나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여

- 이정록, <의자> 전문, 『의자』, 문학과지성사, 2006

땅바닥에다 절하고 땀기느라
허리가 끊어지겠다.

-평생 논밭에다 절하셨잖아요?

쫄쫄하게 힘을 쥐도 금세 활처럼 휘어야.

-활은 만들어서 어디다 쓰시게요?

힘 남았을 때, 한번
오지게 당겨보려고 그런다.

-멧돼지라도 잡으시려고요?

미친놈! 단박에
저승 문짝에 명중시키려고 그런다.

- 이정록, <저승 문짝 - 어머니학교27> 전문, 『어머니학교』, 열림원,
2012

앞의 두 시는 이정록 시인이 노모로부터 시적 발상을 얻어 쓴 노년시이다. 텍스트 전반이 노모의 말로 이루어져 있고, 생산 주체와 거의 일치하는 두 시의 주체는 노모의 말을 전달하거나 그 말에 가벼운 질문을 던질 뿐이다. 시집 『어머니 학교』는 아예 어머니의 말이나 사유로 만들어진 시집이기도 하다. <의자>는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라는 1연의 발화 이후 2연부터 5연까지 모두 어머니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저승 문밖>은 노모와 주체의 대화로만 이루어진 시다.³³⁾

앞의 두 시에서 알 수 있듯 노모는 골조직의 노화로 “허리가 아프”시다. <의자>에서 주체의 어머니는 허리가 아프고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음을 발화하고 있다. 허리가 아프면,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자연스럽게 의자를 찾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세상이 다 의자로 보”인단다.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여”라는 어머니의 발상을 시인이 놓칠 리 없다. 잔가지에 핀 꽃이, 나무에 매달린 열매가 다 의자에 앉은 존재들이고, 가지와 나무가 꽃과 열매의 의자가 되어 준 것이라며, 어머니의 노화된 몸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그 노화된 몸으로도 “의자를 내줘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의자에 앉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처럼 무르익어 혼자서 무게를 지탱할 수 없는 “참외”와 “호박”에게 “지푸라기라도 깔고” “파리도 받쳐”서 “의자”를 만들어 주겠다

33) 이런 경우 텍스트 층에 발화 주체로서 노년이 나타나기 때문에 노년시의 범주에서는 ‘발화 주체가 노년인 시’에 해당한다. 다만, 발화의 중심점에 있는 ‘주체’는 ‘발화 주체로서의 노년’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한 시의 ‘주체’는 시의 생산 주체(시인)와 가깝지만, 똑같은 것은 아니며, 발화 주체가 둘 이상일 수도 있으므로, 발화 주체와 동일하지도 않다. ‘주체’는 단일한 목소리를 가진 한 사람이 아니라 특정 발화가 만들어내는 수행적인 효과를 이르는 이름이다. 따라서 주체가 노인의 말을 직접화법으로 인용하고 있는 시는 주체가 노인을 초점자로 설정하여 노인의 눈이나 입말로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므로, 노년의 발화 주체는 발화가 생겨나는 자리에 있는 ‘주체’와 구분되어야 한다. - 권혁웅, 앞의 책, 30-31쪽 참고.

고 한다. 이처럼 어머니는 노화된 몸을 우대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처럼 힘들어할 누군가를 위해 당신 자신이 의자를 내어주겠다고 한다. 또한, 어머니는 자신의 노화된 몸이 깨닫게 한 이러한 사유를 인간의 삶에 전이시킨다. 아픈 몸을 의지하고, 지친 몸을 쉬게 하는 의자처럼 우리 인간이 누군가에게 의자가 되어주는 삶을 산다면, “그날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어 주는 삶을 산다면, 서로 싸울 일도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요컨대, <의자>는 노모의 골조직의 노화가 오히려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갖게 한 교훈적 노년시라 하겠다.

<저승 문짝>에서도 노모는 “허리가 끊어지겠다” “뿔뿔하게 힘을 쥐도 금세 활처럼 휘어야.”라며 골조직의 노화로 허리가 굽어 생기는 고통 및 허리의 상태를 전한다. 이 노년시의 미적 가치는 노모가 자신의 굽은 허리를 “활”에 비유하고, 주체가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치면서 시작된다. 노모의 말에 응대하는 “-” 표시의 주체가 “활은 만들어서 어디다 쓰시게요?/ 멧돼지라도 잡으시려고요?”라고 묻자 노모는 “힘 남았을 때, 한번/ 오지게 당겨”서 “저승 문짝에 명증시키려고 그런다.”고 응대한다. 노모와 가볍게 주고받은 대화가 이처럼 시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모의 이러한 발상 때문이다. 주체가 활을 단순하게 동물이나 잡는 무기로 생각하고 있을 때, 노모는 활의 모양과 속도의 위력을 생각하고 당신의 노화된 허리를 활에 비유하여 그것을 통해 죽음으로 직행하고 싶다는 바람을 담는다. 그것은 빨리 죽고 싶다는 표현이 아니라 병든 몸으로 구질구질하게 오래 사느니, 고통 없이 “단박에” 죽고 싶다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저승 문짝>은 노화된 몸과 죽음을 하나의 스포츠처럼 유희하는 사유를 보여줌으로써 노화된 몸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덜고 있는 노년시라 하겠다.

지금까지 골조직의 노화에 대한 사유를 담고 있는 세 편의 노년시를 살펴보았다. <계단 오르는 노인>에서는 젊은이들의 건강하고 빠른 걸음과 대비하여 노화된 몸의 고통과 불편함을 부각하는 한편, 젊은이들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가지게 했다. <의자>에서는 골조직의 노화를 겪고 있는 노인이 노화된 몸을 우대받으려 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자신의 아픔을 계기로 자신처럼 아플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 연민을 품고 그들을 위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교훈을 주고 있었다. 또한 <저승 문턱>에서는 골조직의 노화가 주는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유희적 표현으로 무마하고 있었다.

4) 비뇨기관 및 생식기관의 노화에 대한 이해와 당부의 표현

대개 소변이나 대변 등은 개인의 사회적인 학습을 통하여 스스로 자발적인 통제를 하는 부분인데, 노년기에 비뇨기관 및 생식기의 노화로 견거나 옷을 때 소변이 흘러나오는 ‘요실금’이나 대변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변실금’과 같은 증상을 겪게 되면, 노인들은 그 어떤 노화 증상보다 심한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기본적인 통제조차 할 수 없다는 상실감은 심리적인 충격을 안겨 주면서 심각한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한다.³⁴⁾

한편 노화에 따른 생식기관의 변화는 성차가 크다. 남성의 변화는 점진적이지만 여성은 폐경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여성의 난소는 난자 배출을 중단하고, 호르몬의 변화로 안면홍조, 생식기 체모의 감소, 두통, 수면장애, 급격한 기분 변화와 인지 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예고한다. 이에 비교해 남성의 생식기관 구조나 기능상의 변화는 매우 점진적이다. 전반적인 성적 능력이 저하되지만, 노년기의 성적 능력은 개인마다 다르다. 최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노인의 성은 문제이거나 하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문화’로 정착되고 있으며 보다 바람직한 쪽으로 방향전환이 요구되고 있다.³⁵⁾

34) 이호순, 앞의 책, 31쪽 참고.

35) 이호순, 앞의 책, 127-133쪽 참고.

한국 현대 노년시에서도 ‘비뇨기관 및 생식기관의 노화’에 대한 사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로 노년의 주체에 의한 직접적인 발화보다는 그 노년의 자녀에 의해 발견되어 간접적으로 발화되는 경우가 많다.

몸져누운 어머니의 예순여섯 생신날
고향에 가 소변을 받아드리다 보았네
한때 무성한 숲이었을 음부
더운 이슬 고인 밤 풀여치들의
사랑이 농익어 달 부풀던 그곳에
황토먼지 날리는 된비알이 있었네
비탈진 밭에서 젊음을 흑사시킨
산간 마을 여인의 성기는 비탈을 닮아간다는,
세간 속설이 내 마음에 천둥 소낙비 뿌려
어머니 몸을 딱아드리다 온통 내가 젖는데
경성드뭇한 산비알
열매가 꽃으로 씨앗으로 흙으로
되돌아가는 소슬한 평화를 보았네
부끄러워 무릎을 꿇, 세우는
어머니의 비알받은 어린 여자아이의
밋밋하고 옛된 잠지를 닮아 있었네
돌아갈 채비를 끝내고 있었네

- 김선우, <내력> 전문, 『내 혀가 입 속에 갇혀 있길 거부한다면』,
창비, 2000

위 시의 주체는 “몸져누운 어머니”의 “소변을 받아드리다”가 노화된 어머니의 생식기관을 보게 된다. 어머니의 “음부”는 “한때 무성한 숲”이었고, “더운 이슬 고인 밤 풀여치들의/ 사랑이 농익어 달 부풀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노화되어 터력이 다 빠져버린 상태다. 주체는 생식 기관이 노화된 어머니의 그러한 음부를 ‘몹시 험한 비탈’을 뜻하는 “된비알”로 표현하고, 과거와의 대조를 통해 “황토먼지 날리는” 현재 어머니의

몸 상태를 비극화하고 있다. 또한, 그것이 “비탈진 밭에서 젊음을 혹사 시킨” 어머니의 대가인가 싶어 더 마음 아파한다. 그러나 후반부에서 주체는 “경성드뭇한 산비알”을 보며, 노화로 인한 인간의 몸의 변화가 “열매가 꽃으로 씨앗으로 흙으로/ 되돌아가는 소슬한 평화”일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것은 “어머니의 비알밭”이 “어린 여자아이의/ 밋밋하고 옛된 잡지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즉, 주체는 열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듯, 인간의 노화된 몸 또한 옛된 몸으로 돌아가 마침내 흙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문인수의 노년시 <쉬> 또한 비뇨기관이 노화된 노부의 오줌을 누는 장면을 통해, <내력>과 같이 인간의 노화된 몸을 처음으로 돌라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부모가 늙어 “생의 여러 요긴한 동작”들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의 자식의 마음 및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노인들이 비뇨기관의 노화로 겪게 될 당혹감과 수치심을 덮어 주고 있다.³⁶⁾

결국, 두 노년시의 주체들은 노년의 노화된 몸을 처음 몸으로의 귀환으로 인식함으로써 노년과 그 자녀들이 겪을 비탄의 감정을 달래주고, 그것이 결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옛 애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성대도 늙는가,
 굵고 탁한 목소리 10년 전 이사 올 때 뭉쳐 놓았던 고무호스, 벌어진 채
 구멍 오므라들지 않던 호스가 떠올랐다

오후에 돋보기 맞추러 갔다가 들은 이야기; 흰 모시 치마저고리만 고
 집하던 노마님이 사돈집에 갔다가 아래쪽이 조여지지 않아 마루에 선
 채로 그만 실례를 하셨다는데

휴지 가지러 간 사이에 식어버린 몸, 애걸복걸 제 몸에 사정하는 딱
 한 사연도 있다 조이고 싶어도 조일 수 없는 불수의근(不隨意筋), 몸 조
 여지지 않는데도 마음 사그라지지 않는 난감함,

36) 이현정, 앞의 논문, 269-270쪽 참고.

늡음이다 시니피앙과 시니피에가 실은 남남이듯 몸과 마음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 찬물에 발바닥 적시듯 제 스스로 느끼기 전엔 도무지 알 수 없는 사실, 그것이 늡음이다

- 장옥관, <돋보기 맞추러 갔다가> 전문, 『달과 뱀과 짧은 이야기』,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위 시에는 “노마님”이 사돈집에서 비뇨기관의 노화로 “아래쪽이 조여 지지 않아 마루에 선 채로 그만 실례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불수의근(不隨意筋)이란 의지와 상관없이 운동하는 근육을 말하는데, 주체는 “조이고 싶어도 조일 수 없는 불수의근(不隨意筋)”이란 표현을 통해, 조이고 싶은 “마음”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여지지 않고 풀어져버리는 “몸”의 근육, 그것을 “늡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몸과 마음”이 더는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뉘어 몸이 정신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따로 움직일 때, 그때가 ‘늡은 때’라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주체가 “돋보기 맞추러 갔다”라는 것 역시, 눈 근육이 노화로 약화하여 수정체를 조이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 때문이고, “옛 애인”의 “굵고 탁한 목소리” 역시 발성 기관인 성대가 인대를 조이지 못해 생긴 변화이다. 이들의 증상 모두 “조이고 싶어도 조일 수 없는 불수의근”의 상태이므로 이들 모두는 몸의 ‘늡음’을 겪고 있는 상태다. 또한, 그 늡음이, 목소리가 나오는 구멍, 눈의 초점을 맞추는 구멍, 실례를 한 구멍의 노화라는 점, 그것이 또한 조여지지 않는 호스의 구멍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 시는 “불수의근”이 만들어낸 ‘구멍 이미지’를 통해 ‘늡음’에 대한 전언을 생성, 지지, 강화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⁷⁾ 주체는 그러한 ‘늡음’은 “제 스스로 느끼기 전엔 도무지 알 수 없는 사실”임을 강조하며 젊은이들의 노인비하를 경계하고, 늡은 몸을 가진 이들의 “난감함”과 비통함을 보여주고 있다.

37) 권혁웅은 이 시의 “3~4연을 관통하는 ‘늡음’에 대한 전언을 생성, 지지, 강화해주는 이미지가 바로 이 “불수의근”이 만들어낸(무력한 근육 때문에 생겨난) 구멍 이미지들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권혁웅, 앞의 책, 552쪽.

이처럼 한국 현대 노년시에 나타난 비뇨기관 및 생식기관의 노화는 노년들이 몸의 노화로 가장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부분인 만큼 그것이 결코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는 한 과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늡음’이란 몸이 정신의 의지를 따르지 않고 의지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며, 그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노년의 난감함과 당혹감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모를 감정이므로 노인들이 비뇨기관의 노화나 생식기관의 노화로 몸을 통제하지 못할 때, 함부로 노인들을 비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4. 맺음말

이 글은 한국 현대 노년시 연구의 일환으로, 노년시에 나타난 ‘노화된 몸’에 주목하여 노년시의 주체가 몸의 각 기관의 노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의 시적 대응을 보여주고자 했다.

본 연구가 일차적으로 ‘노화된 몸’에 주목한 이유는 노년시의 다양한 주제들이 ‘노화된 몸’과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화된 몸’은 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현상적 장’이자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매개체’이다. 이에 이 글은 몸의 기관별로 ‘노화된 몸’을 고찰함으로써 노년에 대한 다양한 사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한국 현대 노년시에 나타난 ‘외견상의 노화된 몸’에 대한 사유는 발화 주체가 노년인 시에서 더 직접적이며 사실적으로 발화되고 있었다. ‘외견상의 노화된 몸’은 늡음을 인정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며, 그 노화된 늡음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이미지나 비유를 통해 비탄의 감정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긍정적 표현을 통해 노년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시도 있었다.

‘감각기관의 노화’는 시인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노화였으며, 고령의 시인들은 그들이 시인으로서 더는 시적 대상을 감각할 수 없을까 봐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청각과 시각의 노화에 대해 발화하고 있는 세 편의 노년시를 고찰했는데, 청각의 노화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큰 장애가 되는 요인이고, 그로 인해 느끼는 노인의 소외감이 표현되고 있었지만, 노년시의 주체들은 청각의 노화로 심한 갈등을 겪기보다는 스스로 그러한 몸의 노화를 수긍하는 자세를 보였다. 한편 시각의 노화는 생활의 불편함을 가져오고 때론 위험한 일을 겪게도 하지만,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을 새로운 시각적 경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세계를 다시 감각하는 시적 재능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 현대 노년시에 나타난 ‘골조직의 노화’에 대한 사유는, 골조직의 노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젊은이들의 건강하고 빠른 걸음과 대비함으로써 노화된 몸의 고통과 불편함을 부각하는 한편, 젊은이들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가지게 하고 있었다. 또한, 골조직이 노화된 몸을 우대받으려 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그러한 아픔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배려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교훈적 태도를 보여주는가 하면, 골조직의 노화가 주는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유희적 표현으로 무마하고 있는 노년시도 있었다.

‘비뇨기관 및 생식기관의 노화’는 노년들이 몸의 노화에 있어 가장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부분인 만큼 한국 현대 노년시에 나타난 ‘비뇨기관 및 생식기관의 노화’에 대한 사유는, 그것이 결코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는 한 과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었다. 또한 ‘늬움’이란 몸이 정신의 의지를 따르지 않고 의지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며, 그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노년의 난감함과 당혹감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모를 감정임을 강조하면서, 노인들이 비뇨기관의 노화나 생식기관의 노화로 몸을 통제하지 못할 때, 함부로 노인들

을 비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한국 현대 노년시에 나타난 ‘노화된 몸’은 주체가 그것을 자연의 패러다임 속에서 하나의 순리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의 패러다임 속에서 퇴보되고 있다고 여길 때 소외감과 두려움의 발로가 되어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 고찰한 노화 외, 기타 생물학적 몸의 노화에는 소화기, 신경계, 순환기, 내분비 기관의 노화, 뇌·수면의 변화, 잇몸의 약화와 수축으로 치아가 빠지는 현상 등이 있다.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더 다양한 측면에서 ‘노화된 몸에 대한 노년시’가 존재할 것이며, 노화된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늘어가고 있는 만큼, 꾸준히 관련 시들이 발표 될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 필자는 그러한 노년시에 관심을 두고 한국 현대 노년시가 ‘노화된 몸’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계속적으로 연구하여, 고령화 사회에 늙음에 대한 시적 사유 및 대응을 보여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미라, 『몸 주체 권력; 메트로폴티와 푸코의 몸 개념』, 이학사, 2011.
- 권인순, 『노화의 정의 및 분류』, 『대한의사협회지』 50권 3호, 대한의사협회, 2007, 208-215쪽.
- 권혁웅, 『시론』, 문학동네, 2010.
- 김근자, 『고령화 여성의 모발 염색 실태와 염색시술 만족도 조사』, 한성대학교 대학원 헤어디자인전공 석사논문, 2010.
- 김기택, 『소』, 문학과지성사, 2005.
- _____, 『껌』, 창비, 2009.
- 김명인, 『여행자나무』, 문학과지성사, 2013.
- 김선우, 『내 혀가 입 속에 갇혀 있길 거부한다면』, 창비, 2000.
- 김숙희·김화영 공저, 『노화』, 민음사, 1995.
- 김영곤, 『인간은 어떻게 늙어갈까; 노화생물학』, 아카데미서적, 2000.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노년인문학센터, 『인문학자, 노년을 성찰하다』, 푸른사상, 2012.
- 손현숙, 『김명인 시에 나타난 감각의 변용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석사논문, 2014.
- 양운덕, 『미셸 푸코』, 살림출판사, 2003.
- 오상진, 『노화의 생물학』, 탐구당, 2015.
- 오탁번, 『손님』, 황금알, 2006.
- 윤진, 『성인·노인 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1985.
- 이정록, 『의자』, 문학과지성사, 2006.
- _____, 『어머니학교』, 열림원, 2012.
- 이현정, 『한국 현대 노년시 연구 시론』, 『한국시학연구』 제45호, 한국시학회, 2016, 247-284쪽.
- 이호선, 『노인과 노화』, 시기마프레스, 2015.

- 장옥관, 『달과 뱀과 짧은 이야기』,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 정효구, 『노경의 안쪽, 시경의 심층』, 『시인세계』 26호, 문학세계사, 2008, 61-71쪽.
- 조춘희,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노년시 연구』, 『민족문화논총』 제64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187-217쪽.
- 최시한, 『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학과지성사, 2010.
- 최정연, 『노년의 체취, 노인 냄새 없애는 방법은?』, 『헬스투데이』, 2017.10.12,
<http://www.hidoc.co.kr/news/healthtoday/item/C0000295833>
- 홍숙자, 『노년학 개론』, 하우, 2010.
- 황동규, 『연옥의 봄』, 문학과지성사, 2016.
- 게리 크리스토퍼, 오수원 역, 김채연 감수, 『우리는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 이룸북, 2015.
- 마거릿 크룩생크, 이경미 역, 『나이 들을 배우다; 젠더, 문화, 노화』, 동녘, 2016.
- 메들로 폰티, 류의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지성사, 2002.
- 시몬느 드 보부아르, 홍상희·박혜영 역, 『노년』, 책세상, 1994.
- 크리스 쉘링, 임인숙 역, 『몸의 사회학』, 나남출판, 1999.
- Hall, G. S. *senescence: The last Half of Life*. New York; London: D. Appleton and Co., 1922.

<Abstract>

A Study on the Recognition about Senescent Body Appearing in Modern Old Age Poems of Korea and its Embodiment Method

Lee, Hyeon-Jung*

This study is intended to review how subjects of old age poems recognize senescence of each organ and how they embody it by focusing on 'senescent body' appearing in old age poems as a part of a study on modern old age poems of Korea, so it can show the poetic response in the aging society.

The reasoning about 'seemingly senescent body' in modern old age poems of Korea is spoken more directly and realistically in poems whose utterance subjects are the old. The 'seemingly senescent body' is a major factor of admitting aging. The recognition about the senescent body is sometimes expressed as anguish through negative image or comparison, and some poems reveal the beauty and significance of old age through positive expression.

'The senescence of sensory organs' is the senescence that poets feel most regretful, and they are very afraid that they can't perceive poetic objects any more. Among the sensory organs, the senescence of hearing is the factor that becomes obstacle of communicating with others, and a sense of alienation as a result is expressed. However, the subjects of old age poems show the attitude of accepting

*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stitut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nescence of body in stead of experiencing bitter conflict caused by the senescence of hearing. Meanwhile, the senescence of eyesight brings about inconvenience of life sometimes causing dangerous situations, but rather they accept the phenomenon of being unable to see well as a new visual experience, showing poetic talent that perceive the new world differently.

The reasoning of 'the senescence of bony tissue' highlights the pain of senescent body by comparing the old with mobility difficulties to young people's healthy and fast walking. It also makes young people realize the importance of health and have understanding and thoughtfulness towards the old with mobility difficulties. In addition, there are some old age poems that show the attitude of considering others rather than wanting to b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with their senescent bony tissue, or that appease the pain of senescent bony tissue and the fear of death with playful expression.

The reasoning of 'the senescence of urinary system and genital organ' in modern age poems of Korea instills the recognition that it is never shameful phenomenon but the process of returning to the beginning as it is the part that causes the worst humiliation among other organs' senescence. In addition, it emphasizes that 'aging' is the one that moves regardless of body and mind's intention, and that those who haven't experienced never know what the helplessness and embarrassment would be like. It conveys a message to not despise the old when they can't control their body due to senescence of urinary system or genital organ.

In this context, the 'senescent body' described in Korean modern old age poems is admitted as a positive meaning when the subject takes

it as a one of the way conforming the paradigm of nature, however, when the senescent body reflected to paradigm of social relations, subject of poem often takes it a feeling of alienation and fear of identity.

Key Words: the old age poem, senescent body, biological senescence, super aging society, poetic response

■ 논문접수 : 2018년 2월 23일

■ 심사완료 : 2018년 4월 8일

■ 게재확정 : 2018년 4월 16일

